

‘아름다운 택시기사’

**김형권**



# 나눔에는 속도제한이 없어요

운전하며 써둔 글 모아 수필집 ‘파랑새’ 발간  
판매 수익금 아름다운재단에 기부

“단순노동으로 아무 재미없어 보이지만 이 일을 하면 잡생각이 안 나서 좋고, 더욱이 사람 좋아하는 나로서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 나는 이 일이 좋다. 참으로 좋다.”

-<파랑새>중에서

김형권씨(58)의 택시 안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조수석 뒤에 걸려 있는 <파랑새>와 모금함이다. <파랑새>는 택시 운전할 하면서 틈틈이 써둔 글을 모아, 자비(自費)로 펴낸 수필집. 김씨는 <파랑새>를 판매해서 생긴 수익금을 모금함에 모아 아름다운재단이 사장 박상준에게 기부한다.

전직 광고인 출신 김형권씨가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도 5년째. 홍익대 응용미술학과 졸업해, 대기업 계열 광고회사에서 근무했던 그가 택시를 운전하기까지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32세라는 젊은 나이에 부장이 돼 국내 기업을 해외에 알리는 역할을 맡았으며, 퇴사 후에는 디자인회사를 설립해 사장 소리도 들었다. 또 참신한 아이디어로 대통령 후보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이목을 끌기도 했던 그다.

하지만 광고 제작환경이 컴퓨터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에 적응하지 못한 김씨의 회사는 추락을 거듭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그 후로 식당·무역업 등 여러가지 일을 하던 끝에 안착한 곳이 택시 운전이었다.

할 수 없이 선택한 일이었지만 택시 운전은 그에게 세상을 달리 보게 하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다. 택시 운전을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01년,



김형권씨의 택시를 타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수필집 '파랑새'. 김씨는 '파랑새'를 통해 나눔을 말하고 싶을 말한다.

당시 82세였던 모친이 대전에서 길을 잃었는데 한 택시기사의 도움으로 찾을 수 있었던 것. 그 기사는 모친을 파출소에 모셔다 주었고, 파출소에서는 고맙게도 모친에게 따끈한 설렁탕을 한 그릇 대접해줬다. 이들의 친절 덕분에 모친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 일을 겪고 나자 택시 운전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고, 세상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세상은 더 이상

**“선살 넘어 살아온 길 되돌아보니  
여러사람에게 도움 받았던군요”  
하루 수입의 1% 꼬박꼬박 챙겨  
‘나눔의 택시’ 동참, 확산에 앞장**

경쟁과 갈등만 가득한 무간지옥이 아닌,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연화세계’였다. 자신에게 큰 피해를 입힌 친구에 대한 미움까지도 사라졌다.

그렇게 한결 여유로워진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봤다.

“먹고 사느라 앞만 보고 뛰며 보낸 세월 속에 어느덧 내 나이가 원 살이 넘었더군요. 그제야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제 주위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생각해봤지요. 해를 끼친 이들은 다섯 손가락에 꼽

힐 정도로 적었지만, 도움 준 이들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저는 다른 이들의 도움 속에서 살아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들에게 딱히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고, 속이기나 하지 않았나 싶더군요.”

이런 작은 깨달음 속에 그가 선택한 것이 ‘회향하는 삶’이었다. 승객에 대한 친절은 기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업어서 아파트 5층까지 모시는 등 서비스를 아끼지 않았다. 또 사정이 딱한 노인 승객에 대해서는 택시요금조차도 받지 않았다. 그래도 굳이 내겠다고 하면 1000원만 받았다.

선행을 배울기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루는 월남전에서 두 팔을 잃은, 같은 나이 또래의 장애인을 태웠다. 그 승객은 주머니에서 요금을 꺼내다가 말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내 자신이 누렸던 경제적인 안락은 바로 그 승객과 같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 위에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타인이 있기에 내가 존재하며, 타인과 나는 둘이 아니라는 사실에 눈을 뜬 그는 지난해 아름다운재단의 ‘1% 나눔운동’을 만나면서 체계적인 회향의 방식을 배울 수 있었다.

“기부란 돈 많은 사람들이 실컷 쓰고 남은 돈으로 하는 것인 줄로만 알았지요. 한 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저로서는 저와 거리가 먼 남의 얘기라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1% 나눔운동은 그 같은 막연한 부담감을 허물어뜨렸습니다.”

그 후로 김씨는 하루 수입의 1%를 꼬박꼬박 모금함에 집어넣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자신의 인생역정과 나눔의 소중함을 살펴하는 <파랑새>를 펴냈다. 나눔을 통해 세상이 더욱 밝아 지리라는 확신에서다.

김씨가 적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택시 운전을 즐기 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일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람 좋아하고 대화를 좋아하는 자신에게 택시 운전은 세상의 어느 일보다도 즐거운 일이다. 노인 승객에게는 말벗이 돼 주고, 젊은이에게는 인생상담도 해줄 수 있는 이 일이 마냥 좋다. 회사가 자기에게만 일을 시킨다고 못마땅해 하는 회사원에게는 “잘 드는 칼만 쓰는 법”이라며 달래고, 갈 길이 바빠 독촉하는 승객에게는 퀵즈를 내며 여유를 가르친다. 이쯤이면 천직이라 할 만하다.

“운전기사란 것이 목숨 걸고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적고, 사람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다보니 좌절 끝에 선택하는 인생막장으로 인식되고 있어요. 하지만 달리 보면 승객에 봉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요.”

이제 김씨는 아름다운재단의 ‘나눔의 택시’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뜻을 함께 하는 동료 기사들과 함께 친절할 서비스와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나서며, 나눔 문화 전파에 앞장설 예정이다.

“인생은 단막극이 아니며, 위기가 곧 기회”라는 자신의 믿음을 오투기처럼 일어서는 삶으로써 보여준 김형권씨. 택시 운전을 통해 나눔의 기쁨을 실천하는 그는 오늘도 승객들을 태우고 ‘나눔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달린다.

글=박익순 기자 · 사진=박재원 기자



##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연꽃잎 제조특허(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등록 제098634호)외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 만일등, 중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전송 :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e-mail : chanduk21@hanmail.net

참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케이블은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모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경고 합니다.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